



CONTENTS

March 2020
VOL. 386

함께 ON 군포

군포오감	04
in & 人	08

가치 ON 군포

기획특집	12
헬로우 군포	14



군포시청과 SNS로 친구맺기

 www.facebook.com/gunpocity
 blog.naver.com/o2gunpo
 www.instagram.com/gunpocity
 www.twitter.com/gunpocity
 www.youtube.com/user/gunpocity

군포소식 계속 사랑해 주세요!

시정소식지 <군포소식>은 1995년 발행을 시작해 2019년 까지 신문 형태(타블로이드판)로 제작했으나 제385호 (2020년 2월호)부터 책자형으로 발간합니다. '시정소식지 4집지' 구성으로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를 담은, 새롭고 더 알찬 소식을 전할 <군포소식>을 계속 사랑해 주세요.

군포소식

발행 2020년 3월
발행인 군포시장
발행처 군포시청 홍보기획과
홈페이지 www.gunpo.go.kr
디자인인쇄 경인M&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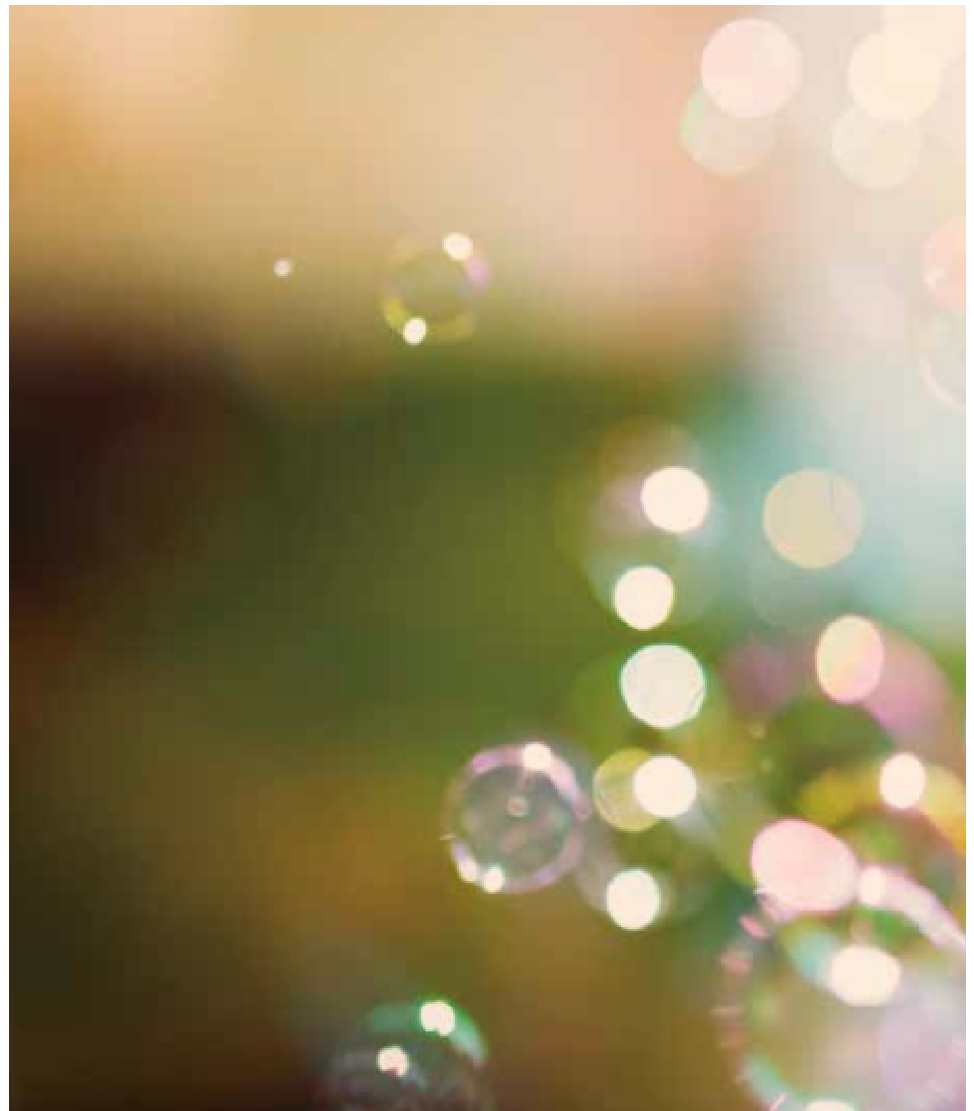
정기구독 신청(무료)

☎ 031-390-0062, 0753
✉ gunpo-city@naver.com

※ 구독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군포소식>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삽화는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감 ON 군포

공감+공간	16
이야기가 있는 명화	18
핫 트렌드	20

행복 ON 군포

보건 복지 생활정보	22
희망소식	23
군포소식	24
의정소식	30

참여 ON 군포

독자참여	32
문화 캘린더	35



미래를 창조하기에 꿈만큼 좋은 것은 없다.
오늘의 유토피아가 내일 현실이 될 수 있다.

- 빅토르 위고

금정역 환승센터 건립 사업

복층 형태 인공대지에 복합건물과 광장 등 조성



지난 1988년 안산선의 개통과 함께 경부선과 안산선의 분기점 역할을 하는 수도권 전철 전용역으로 탄생한 금정역은 과천선이 개통되며 현재까지 전철 1·4호선을 연결하는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일일 평균 23만여 명이라는 이용객 수요에 비해 낙후된 시설은 전반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글. 노호성







금정역 삼거리 전경

시민들의 오랜 숙원 해결 위해 본격 사업 돌입

금정역은 경기도 내 154개 역사 중 7번째로 이용 비율이 높은 곳이다. 특히 지난해 연말부터 1호선 급행전철이 정차하면서 이용객수가 급증하는 현실이다. 반면 역사의 시설은 이미 낙후 및 노후화된 상태로써 전반적인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으며, 이는 군포시민들의 오랜 숙원이기도 했다.

금정역 일원이 개발 계획에 오른 건 지난 2018년 12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부터다. 시는 GTX-C노선 개통이 예정된 오는 2027년 전철 1·4호선 환승객을 제외한 금정역의 하루 승·하차 인원만도 8만 2천여 명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 협소하고 오래된 금정역의 승강장과 진출입 계단 등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용자 불편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 때문에 시는 지난해 2월 금정역 환승센터 건립에 관한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



군포시 전경(금정역 중심) 항공사진

산적한 과제와 희망의 공존

금정역 환승센터 건립에는 여러 산적한 과제도 존재한다. 그중 하나는 구조상 부족한 여유 선로 간의 간격이다. 다음은 전철 1·4호선 및 국철 등 3개 노선이 지나고 있어 공사가 시작되면, 대체 선로의 부지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이다.

또 하루 철도 운행시간이 20시간에 달해 일일 실제 공사 시간이 철도가 운행하지 않는 새벽시간 중 3시간 안팎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도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여기에 열차 운행의 기간 시설인 지하매설물의 이설 문제와 안전을 고려해 제한된 공법을 활용할 경우 사업비용의 증가라는 현실과 직면하기도 했다. 이에 군포시는 2019년 10월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의 전반적 이해를 도모했으나, 환승센터 건립 사업에 큰 기대를 갖고 있던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등 난항에 직면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사업의 중요성과 미래성을 감안해 작년 12월 전담 TF팀을 구성,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열악한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금정 환승센터 입체화 사업계획(안)

인공대지로 새로운 가능성 열어

군포시는 깊은 고심 끝에 금정역 환승센터를 역사 밖으로 끌어내지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는 유사 사례들과 같이 역사 내 한정된 공간 안에서 답을 찾던 기존의 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됐다. 역사 외부에 대중교통과 연계한 환승센터를 조성해 기존 시설과 연결하겠다는 입체화 개발방식이다. 부지확보 방식도 기존의 틀을 깬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금정역 앞 삼거리에서 산본시장 사거리 방면의 기존 도로 위에 1만㎡ 규모의 복층 형태로 된 인공대지를 조성해 자연친화적인 열린광장 등을 계획해 시민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또한 도로 지하에 주차장을 신규 건설해 주변 상권과 연계, 시민들이 겪어오던 기존의 불편까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추후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해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만드는 복합공간으로 꾸며갈 예정이다.

이처럼 금정역 환승센터 건립 사업은 군포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중요 사업으로, 다양한 도전과 변화로 지역 활성화를 이끌 중심축으로 안착되길 거듭 희망해본다.

Special Theme

군포 취약계층 아동들의 엄마, 심희란 씨



글·사진. 노호성

행복이란 누구에게나 주어진 공평한 권리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사회
면면에선 여전히 아픔을 일상으로 알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이에 사각지대에 방치된 아동들을 위해 작은 사랑 나눔을 실천하며,
잔잔한 울림을 전달해 귀감이 되고 있는 이가 있어 만나봤다. 바로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엄마를 자처하고 있는 군포시마을기업 (주)좋은터의 심희란 씨가
그 주인공이다.



우연한 기회에 찾아온 나눔 활동

지난 2월 겨울비 내리던 어느 날, 군포 관내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찾아 엄마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심희란 씨(52)를 만났다. 이미 장성한 두 자녀를 어엿한 사회인으로 키워낸 그가 또다시 아이들의 엄마를 자처한 사연은 무엇일까?

“평소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해아겠다는 생각을 늘 마음 한편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걷다 우연히 작은 현수막 하나를 발견했는데, 바로 아이들을 위한 나눔 실천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죠.”

그길로 심희란 씨는 뜻을 함께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주저 않고 군포시마을기업 ㈜좋은터를 찾아가 실천에 옮겼다. 벌써 3년 전 일로 관내 한부모 가정 및 조부모가정의 아이들과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 엄마의 빈자리를 알 리 없는 평범한 가정의 아이들과 달리, 건강한 양육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 복지 사각지대 아이들을 위해 자신을 나누고 있는 것이다.

기다림 통해 마음의 문 열어야

심희란 씨는 자신 스스로도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첫 가정 아이와의 인연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철옹성처럼 닫힌 아이의 마음을 열어보려 했던 다분한 노력과 그로 인해 변화할 수 있었던 아이와의 소중한 인연 때문이다.

“경험이 없던 터라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었습니다. 제 마음과 달리 굳게 닫혀있는 아이와 보호자의 마음을 여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며, 제 마음을 알아주더라고요.”라며 미소와 함께 당시를 회상한다.

이런 그는 아이들과의 교감을 위해 기다림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다.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학기당 평균 13~15회 정도의 만남을 갖는데, 보통 2~3회째까지는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는 급한 생각에 먼저 다가갈 경우 아이와 보호자의 마음이 더 닫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당당하며 기죽지 말고
스스로 사랑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어주길
희망합니다

”



아색로, 아이들이
가족단위로 많은
관광명소로 사랑



5.1.
시흥군 군포읍 승격
1979년 5월 1일 시흥군
승격한 날에는 읍사무소
외에도 대대적인 축하행
곳곳에 읍 승격을 알리
군포역에서부터 군포읍
하며 축하 분위기를
이날 처음으로 군포읍
쓰이기 시작했다

1970년대
공업발달과

1989.1.1.
군포시 승격

군포읍으로 승격한 지 9년 8개월 만에 시로 승격하였다.
이후 1993년 1월 6일 현재의 위치(군포시 장백리길 6)로 청
사건하였다.

1989



옛 청사 모습
군포 1-2 대이영장복지센터로 사용되고 있다.



어쩌면 운명이었을까

그는 지난 3년 간 10여 명의 아이들과 인연을 쌓아왔다. 그리고 최근엔 2명의 초등생(3·4년) 남아와 1명의 초등생(6년) 여아의 엄마로 활동하고 있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별처럼 반짝이는 아이들이 또 있을까요.”라며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과시한다. 하지만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이 친구들과의 인연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여전히 나누어줄게 많은 심희란 씨는 올해 새로운 학기가 시작돼도 다시 이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요청해놓은 상태다. 꼭 끝까지 책임지고 싶은 엄마의 마음 때문이다. 이 같은 그를 보니 우연으로 시작된 지금의 활동이 혹시 운명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따뜻한 밥상이 불러온 변화

애뜻한 경험도 있다. 각별한 인연을 쌓아가던 한 아이와 그 기정이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야해 더 이상 돌볼 수 없었던 사례다. 아마도 정이 든 만큼 보내기도 아쉬웠던 터로 이해된다. “정말 많은 변화를 보여주었던 친구였습니다. 특히 엄마의 정을 모르고 성장했던지라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전화를 했던 친구예요. 저와 조금 더 있었더라면...”이라며 눈시울을 붉힌다.

그의 엄마로서의 역할이 특별한 건, 따뜻한 밥상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가족이 둘러앉아 답소를 나누고 따뜻한 밥 한 그릇 비우는 게 특별한 것 없는 일상이겠으나, 그가 돌보는 아이들에게 사치일 수도 있다.

이에 심희란 씨는 평소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져 있는 아이들을 위해 정성이 담긴 반찬을 만들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물론 일을 마치고 집으

로 돌아올 보호자를 위한 상을 정성스럽게 치러놓고 나오기도 한다. 이러한 덕분에 무심하던 보호자들도 심희란 씨에게 마음을 열게 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올 때도 있다고, 여기에 하나 더 심희란 씨는 아이들에게 밥상머리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혼자 식사하는 경우가 빈번한 아이들에게 밥상예절을 통해 가족의 끈끈한 정을 알려주고 싶어서다.

스스로 사랑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어주길

심희란 씨는 자신이 돌봐온 아이들을 무지개로 표현한다. 아마도 아이들 하나하나가 가진 긍정적 매력을 색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때 각자가 가진 취향을 적극 반영한다. 산책을 원하는 아이와는 함께 산책을 하고, 패밀리레스토랑에 가고 싶은 아이와는 함께 외식을 해주는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며 함께 해준다.

이밖에 보호자의 관심에서 멀어진 아이들을 위해 등교시간을 손수 체크하는 것은 물론 아이와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선 함께 요리를 해 식사시간까지 갖는다. 또한 간혹 자신와 엄마 역할을 부정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정성스레 작성한 손편지를 작은 선물과 함께 문 앞에 두고 오는 등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기 위해 노력을 다한다.

이러한 그는 “당당하며 기죽지 말고 스스로 사랑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어주길 희망한다.” 또 “엄마가 늘 곁에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으니, 언제든 필요하면 손 잡아주고 안아주겠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채 아픔을 호소하는 아이들의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짐했다.

2020년 3월 1일부터 일원화되는 학교폭력 구제 절차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3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그동안 학교에서 다루었던 학교폭력 업무가 교육지원청
으로 이관되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두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아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밖에도 피해자와 가해자로 이원화 되어 있는 있던 재심 청구 기관을 없애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학교폭력 구제 절차를 일원화시켜 학교폭력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학생은 시청이나 도청의 지역 위원회에,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청의 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다 보니 재심 기관의 상반된 결정으로 처분이 반복되는 등 당사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혹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당사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이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가 적절한 처분이라 생각되면 그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원화된 학교폭력 구제 절차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모든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에 비해 간결한 절차로 불복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또는 있는 날로부터 180일 내에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위원회의 결정 과정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참석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전달할 수 있으나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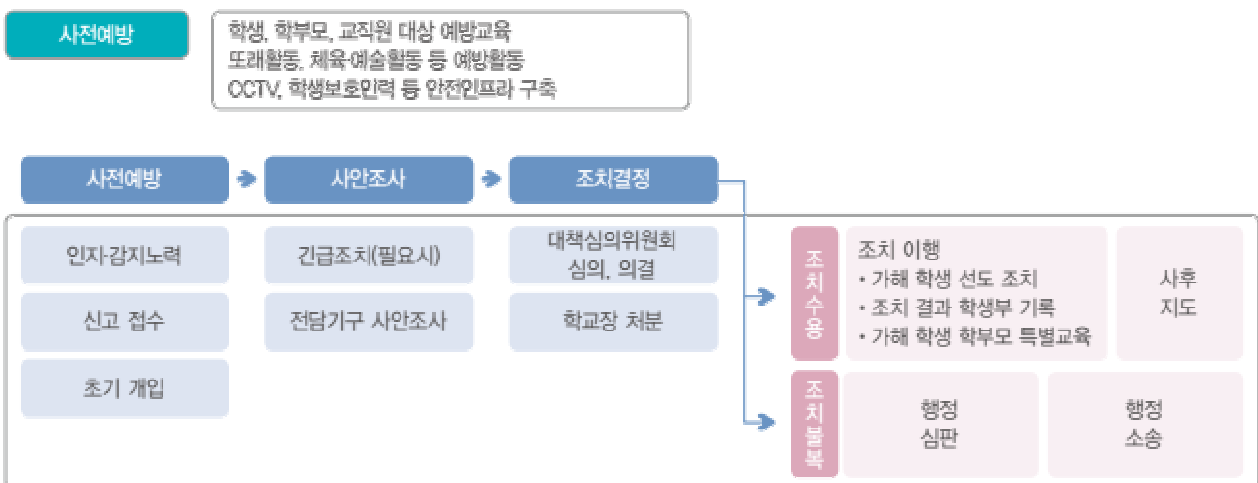
이상 학교폭력 구제 절차에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구제 절차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겪게 하려는 의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보라 행정사

다음 편에서는 교사, 학부모, 학생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하고, CCTV 단속지역 알림 받자



글사진. 군포시 블로거기자 강지은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가 궁금하세요?

잠시 들를 곳이 있어 길가에 차를 세웠는데 그곳이 주정차 단속구역이라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인지 모르고 주차 후 다시 차를 났는데, 전면 위에 본인 차량을 향해 초점이 맞춰있는 CCTV 카메라...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곳이 주정차 단속지역이라면 진작 주차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번 외중에 주변을 요리조리 살필 수도 없고요, 이처럼 주정차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이 있다면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CCTV 단속 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단속 지역임을 실시간 안내해줍니다. 단, 수기단속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보 신고(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앱 등)는 제외입니다.

두 가지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서비스 신청방법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신청해볼까요?



01

홈페이지를 이용한 알림서비스 신청 안내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접속해 진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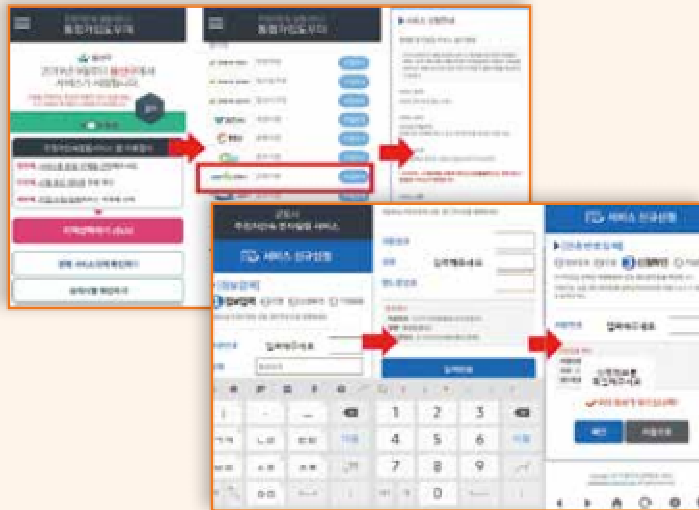
군포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www.gunpo.go.kr/parkingSMS/new/index.php



02

스마트폰을 이용한 알림서비스 신청 안내

스마트폰 앱스토어 검색창에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검색하면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통합 도우미 앱'이 나옵니다.
앱을 설치 후 서비스를 받을 지역을 '군포시청'으로 선택하여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1. 서비스 유의사항 동의 및 가입 버튼 클릭

서비스 신청 안내와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고 체크해줍니다. 알아 두어야 할 부분은, 등록 차량 한 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 번호 하나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거주지와 관계없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다면 군포시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문자 알림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밖의 유의사항은 앱을 참고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말아야겠습니다.

2. 개인정보이용, 제공 동의, 차량번호, 성명, 핸드폰 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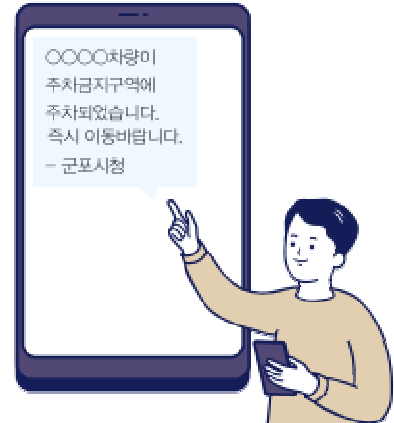
서비스 가입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핸드폰 번호를 통해 본인 인증을 절차를 거치니 인증번호가 오면 알맞게 입력하세요.

3. 신청확인

인증을 마치고 나면 신청 확인을 하게 됩니다. 등록한 차량번호와 성명, 핸드폰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요, 수정사항이 있다면 처음으로 가기 버튼을 눌러 다시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가 맞으면 확인 절차를 거쳐 다음으로 갑니다.

4. 가입완료

이렇게 되면 가입이 완료되는데요, 정말 간단하죠?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완료 문자'가 오게 됩니다. 제대로 가입이 완료된 것이죠, 이렇게 신청해놓으면 안심입니다.



앞으로 군포시 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할 경우 문자가 전송됩니다. 하지만 [서비스 유의사항 동의] 란에 나와 있듯이 시스템 오류, 이동통신사의 사정 등으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주세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같이 한번 신청해보는 게 어떨까요? 한 번 신청해놓으면 재신청 할 필요 없이 편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함께 가입신청해주실 거죠?

Information

☎ 교통과 031-390-0846

🌐 www.gunpo.go.kr/parkingsms/new/index.php

1900년대 농촌 계몽운동의 중심지

군포 둔대동 박씨 고택

군포 둔대동에 위치한 오래된 고택 하나,
1920년대 지어진 오래된 이 한옥은 농촌 계몽운동의 중심지로
100년에 가까운 세월에도 여전히 당시의 그 모습을 지켜오고 있다.

글. 노호성





Information

- 군포시 둔대로11번길 12
- 문화체육과 031-390-0748

시간, 정신을 품다

매서운 늦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달 중순, 군포 둔대동 (행정동 대야동)에 우리 역사를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 박씨 고택을 찾았다. 도착과 함께 시야에 들어온 고택과 미주서 100년 전 오늘의 모습을 잠시 상상해본다.

이어 천천히 고택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오랜만에 여유리는 호사를 누려본다. 고택을 떠받치고 있는 4개의 기둥을 따라 향한 시선이 한옥의 처마 끝을 따라간다. 하늘로 향한 처마에 걸린 구름 한 조각이 여유와 사색을 선사하는데, 1927년 일제강점기 당시에 지어진 고택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보존 상태가 꽤 뛰어나다.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

과거 농촌 계몽운동에 이바지한 고(故) 박용덕 선생의 거주지 '둔대동 박씨 고택'은 2019년 10월 군포시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됐다. 박용덕(1898~1970) 선생은 일제강점기 최용신 선생의 야학 강습소 건립을 지원하는 등 농촌 계몽운동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해 10월 30일 교육부로부터 국민

훈장 모란장을 추서받은 인물이다.

박씨 고택은 1927년 건립 이후 박용덕 선생의 가족들이 생활하던 전통 가옥으로 현재 후손들이 보존은 하고 있지만,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에 비해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시는 이곳을 향토유적으로 지정한 뒤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으로 관리 및 일반인 대상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건축적 미학과 가치 뛰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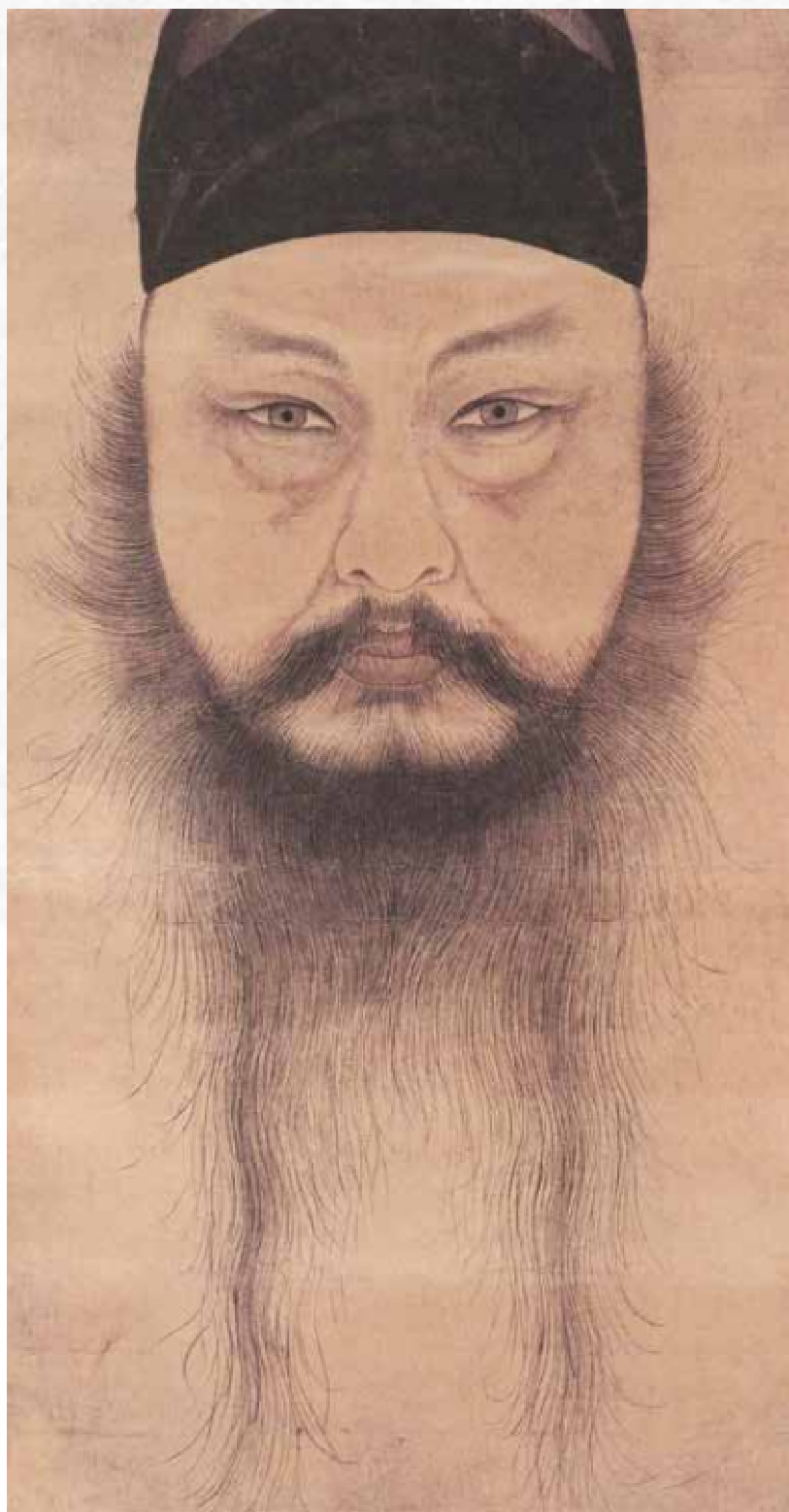
이 고택이 주목받는 이유는 한옥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 잘 반영된 수준 높은 구조미 때문이기도 하다. 가옥의 배치는 ㄱ자형 안채와 ㄴ자형 바깥채로 구성되는 전형적인 경기도 민가의 뜰 배치 형태를 하고 있지만, 바깥채 전면엔 누마루를 설치해 건축적 가치를 더했다는 평가다. 이 밖에 1920년대 후반 서울에서 유행하던 유리화와 철물 등을 활용한 도실형 한옥으로써 시대적 흐름을 잘 반영한 건축물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야기가 있는 명화

공재 윤두서의 〈자화상〉

告解聖事[고해성사],
그리고 自畫像[자화상]

시대를 거치며 끊임없이 피고 짐을 반복해온 미술계의 거장들. 그들은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자신의 얼굴을 담은 자화상을 통해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그것은 예술가들 스스로 자신들에게 던지는 물음이자 외침이며, 독백이자 고해성사다.



공재 윤두서 자화상 20.5cm×38.5cm

선비화가 윤두서(尹斗緒, 1668~1715), 몽환

조선 후기의 3재(三齋)로 불리던 선비화가 공재 윤두서의 자화상은 어둠 속에서 가만히 떠오른 듯 몽환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상반신이 생략된 정면관(正面觀)의 두상 초상인 이 작품은 다소 살집 있는 얼굴에 홍조가 더해져 지극히 한국적인 모습이다. 여기에 위로 치켜진 눈매와 눈썹으로 다소 매섭게 보이지만 복스러운 코와 꼭 다문 두툼한 입술은 그의 고집스러움마저 엿보게 한다. 특히 한 올 한 올 섬세한 터치로 자화상의 전반적 분위기를 압도하는 탐스러운 수염의 묘사는 극사실적으로, 바람이 불면 금세라도 흩날릴 듯 자연스럽다. 가로 20.5cm, 세로 38.5cm의 작은 종이 위에 그 한 사람의 무게감이 묻어난다.

조선 후기의 문인 이하곤(李夏坤, 1677~1724)은 윤두서의 자화상을 본 후 감상문을 통해 “6척도 되지 않는 몸으로 천하를 뛰어넘으려는 의지가 있다. 긴 수염 나부끼는 얼굴은 기름지고 붉으니, 바라보는 사람은 사냥꾼이나 검객이 아닐까 의심한다. 하지만 자신을 낮추고 겸양하는 풍모는 돈독한 군자와 비교해도 부끄럽지 않다. 내가 일찍이 평하기를 풍류는 고개지 같고 뛰어난 예술은 조맹부 같으니 그 사람을 천 년 뒤에 알려고 하면 또한 그림으로 그려진 모습에서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 같은 그의 자화상엔 시대적 명암이 담겨 있다. 윤두서는 젊은 시절 한양에서 학문을 닦던 명문가의 종손으로서 그리고 재벌가의 자제로서 정치 입문에 대한 뜻을 품고 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으나, 남인 계열인 해남 윤씨가 당쟁에 휘말리는 등 여러 이유로 그의 나이 46세 때(1713) 서울 생활을 버리고 해남 집으로 낙향을 결심한다. 그리고 2년 뒤 48세를 일기로 삶을 마감되는데 이러한 삶의 굴곡 때문인지 윤두서의 자화상엔 문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화가로서의 자의식은 물론 단호함과 결단력 속 쓸쓸함이 뒤섞여있다.

윤두서의 자화상의 제작 시기에 대해선 견해가 분분하다. 보통은 뛰어난 묘사력으로 보았을 때 그가 낙향 후엔 그림을 거의 그리지 않았다는 점으로 그의 나이 40대 초반(1711년에서 1713년)에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선 아들 윤덕희가 “공재공이 30세가 되자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다. 모친상 중에 형님마저 여의게 되니, 반백이 되었다.”라고 말한 증언에 따라 머리카락과 수염이 모두 검게 그려진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자화상은 윤두서의 나이 서른 이전, 즉 1698년 즈음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전 화가들에게선 볼 수 없었던 현실적 터치와 내면의 심리적 묘사다. 보는 이들로부터 감탄사를 자아내게 만드는 그의 작품을 통해 우리는 카리스마를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 당시를 경험할 수 있었다면 감히 혁신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우리 집에도 봄이 오나 봄!
2020 봄맞이
홈인테리어 트렌드



최근 세계 각국의 트렌드와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보면, 올인빌(All in Vill)을 넘어 '올인룸(All in Room)'의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올인룸이란 기존의 방과 거실 등 공간을 구분 짓는 것이 아닌 복합 공간으로써 역할을 하는 공간을 일컫는데, 이는 빠르게 변화되는 우리의 라이프스타일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20-2021년 7대 주거공간 트렌드

부동산 전문기업 피데스는 올해와 내년 7대 주거공간 트렌드로 슈퍼&하이퍼 현상, 위두(We Do), 올인룸(All in Room), 낮낮 공간, 팝업 DK(Pop-up Dining Kitchen), EB 주연시대(Echo-boomer :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 펫·봇·인 스테이를 선정했다. 이는 4차산업혁명 기술의 영향으로 공간의 용도와 기능, 그리고 분류가 무의미해지고 기존 공간의 패러다임이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올인룸(All in Room)이다. 내 방이 휴식과 일이 동시에 가능한 만능공간이 된다는 의미인데, 이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음성인식 등과 같은 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일상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홈 가드닝, 자연을 집안으로

기술의 발달로 인해 주거공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자연을 그리워하고 가까이하려는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요즘과 같이 봄내음 가득한 계절이 되면 겨우내 묵었던 먼지를 털어내고 화사한 분위기를 만들어 봄을 만끽하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럴 때 홈 가드닝(Home gardening)이 제격이다. 새 가구를 들어거나 커튼과 침구를 바꾸어 봐도 뭔가 부족하다면 더욱 그렇다. 나의 취향과 스타일에 맞는 식물을 들여 개성을 뽐낼 수도 있고, 또 집안의 공기를 보다 쾌적하게 만드는 역할까지 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다.

그렇다면 홈 가드닝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노하우 몇 가지를 알아보자. 먼저 식물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만약 식물을 키우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식물을 고르는 게 노하우다. 홈 가드닝에 적합한 식물로는 구근식물이 있다. 대표 식물로는 수선화, 히아신스 등이 있는데, 물만 잘 주면 별 문제 없이 키울 수 있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다육식물은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도 키울 수 있어 추천할만하다.

또 홈 가드닝을 즐기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더욱 그렇다. 아이들은 작은 식물 하나가 주는 변화에도 큰 기쁨을 느끼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한 정서적 이득은 덤이기 때문이다. 또 식물별 관찰 일지를 작성하게 해 어린이들의 관찰력과 탐구심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교육 자료가 되니 필히 추천해본다.

2020-2021년 7대 주거공간 트렌드

슈퍼&하이퍼 현상

공간의 패러다임과 경계 초월

위두(We Do)

공유에서 구독을 넘어 같이하는 공간

올인룸(All in Room)

만능 공간으로 진화하는 방

낮낮 공간

24시간 물류 플랫폼으로서의 도시

팝업(pop-up) DK

식사 방식의 변화와 주방의 기능 변화

EB 주연시대(Echo-boomer)

베이비부머 세대 자녀들의 부상

펫·봇·인 공간

반려동물, 로봇, 사람의 공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국민수칙**

필수 위생수칙 4가지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의료기관(선별진료소) 방문 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



가급적 외부활동 자제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발열, 호흡기 증상 시 선별진료소*방문 또는
관할보건소, 1339, 지역번호+120 상담**

* 선별진료소 안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문의



“나, 내일부터 출근한다”

군포시가 추천하는 이달의 일자리 정보!

기업정보	모집 직종 및 인원	근무시간 / 임금
주식회사 시큐어지니 문서중앙화 보안솔루션 구축 ㉠ 안양시 동안구 엘레스로116번길 25-32, SKV1센터 710호(호계동)	IT 기술영업원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 1명	㉠ 09:00~18:00 ㉡ 연봉 3천2백만원~4천2백만원
주식회사 푸드윈 이동급식 위탁급식 ㉠ 군포시 공단로 149, 군포아이밸리 404호(당동)	사업체 구내식당 급식 조리사 / 3명	㉠ A조(03:00~13:00), B조(06:00~16:00)중 택일 ㉡ 연봉 2천5백만원~3천만원
(주)빅솔 사료첨가용 동물약품 제조 ㉠ 군포시 엘레스로 196, 삼성IT타워 7층(산본동)	회계 사무원(일반 사업체) / 1명	㉠ 09:00~18:00 ㉡ 연봉 2천9백만원 이상
(주)홍선 육포제조도소매 ㉠ 군포시 산본로48번길 32(당정동)	육류 가공기계 조작원 / 1명	㉠ 08:30~17:30 ㉡ 월급 2백만원 이상
(주)주니테크 PCB 조립, 제조 ㉠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로 64-5, 4층(부곡동)	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1명	㉠ 09:00~18:00 ㉡ 시급 8,590원 이상
(주)케이티엠테크놀로지 전자부품, 통신전자계측 ㉠ 군포첨단산업2로 46, 5층(부곡동)	해외 영업원 / 2명	㉠ 09:00~18:00 ㉡ 연봉 2천5백만원 이상
자이드 LED 조명 및 백라이트 제조 ㉠ 군포시 고산로126번길 8(당정동)	PCB 부품-제품 조립-검사원 / 2명	㉠ 주5일, 주간 2교대(07:00~15:30/13:00~21:30) ㉡ 시급 8,590원 이상
(주)피앤티크 캐리어테이프 ㉠ 군포시 공단로 93-17, 2층(당동)	전기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1명	㉠ 09:00~18:00 ㉡ 월급 2백만원 이상
(주)진한 산업, 가정용플라스틱일반성형 ㉠ 군포시 공단로140번길 55, 진한(당정동)	창고 관리원 (자재 검수원 포함) / 2명	㉠ 08:30~20:30 ㉡ 연봉 2천4백만원 이상
원광대학교의과대학산본병원 의료 ㉠ 군포시 산본로 321, 원광대학교 산본병원(산본동)	간호사 / 3명	㉠ 08:30~17:30 ㉡ 월급 250만원 이상

군포소식

군포시가 알려주는 유익한 정보

01 군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입은 지역경제 총력 지원

군포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경제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먼저 전통시장 영세상 인들을 위해 2월 19일부터 한 달 동안 매주 2회씩 모두 10회에 걸쳐 시청 공무원들이 산본시장(수요일)과 군포역전시장(금요일)에서 전통시장 정보기에 나섰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3월 한 달 동안 지역화폐인 '군포앓머니' 인센티브 확대 특별이벤트를 실시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평소 충전금액의 6%인 '군포앓머니' 인센티브가 10%로 확대되며, 충전한도는 1인당 월 50만원이다. '군포앓머니'는 전통시장 정보기에도 사용이 권장된다. 이와 함께 본청 공무원들이 3월 말까지 주 1회 시청 구내식당 대신, 시청 인근 외부식당을 이용하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아래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과 고지유예·본할고지·체납액 징수유예, 압류·매각 등 체납유예를 6개월(최장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무조서도 유예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서는 중지하거나 연기할 방침이다.

문의

지역경제 분야 지역경제과 ☎031-390-0267

세제지원 분야 세정과 ☎031-390-0181

02 재)군포사랑장학회 2020년 장학생 선발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군포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관내 (관외는 특수목적고) 고등학생 및 대학생

※ 특기분야를 제외한 고등학교 신입생 지원불가

장학금액 장학회 홈페이지

☎ www.gunpolove.or.kr 참조

선발인원 152명

접수기간 2020. 3. 9(월)~3. 17(화)

접수처 군포사랑장학회 사무국(군포시청 2층, 대회의실 옆)

문의 장학회 사무국 ☎ 031-390-0995~6

03 군포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군포시는 다음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준다고 밝혔다. 시는 올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차례 이상 환급금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안내문 발송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10만원 이상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주소지로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환급해줄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위택스(Wetax), 민원 24

☎ 지방세 자동응답서비스(1577-9885)

문의

세원관리과 ☎ 031-390-0197

04 장기·인체조직 기증 희망등록 안내

장기·인체조직 기증 희망등록이란?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했을 때 장기 또는 인체조직을 대가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등록기관에 신청하는 것

등록방법

- ① 군포시보건소 기증 희망등록 창구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 ☎ 031-390-8904
- ②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접속 후 등록 ● www.konos.go.kr
- ③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로 신청서 요청 후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기

장기·인체조직 기증 희망등록이 완료되면?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로 기증희망등록증과 스티커(신분증용, 차량용)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장기·인체조직 기증 희망등록을 하면?

-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군포시 평생학습원, 문화예술회관 문화강좌, 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등 감면

문 의 군포시보건소 ☎ 031-390-8905



운전면허증 기증희망자 표시

- 신청서 작성 시 「운전면허증에 기증희망자 의사표시」 항목에 '예' 라고 체크
-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 시 운전면허증 사진 하단에 기증희망자 표시

05 산본시장 환경개선공사에 따른 「영업중단」 안내

노후된 바닥(통로) 등을 보수하여 산본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환경정비(도막형 바닥재포장)를 통해 전통시장의 활성화 추진

공사내용

- 아스팔트 포장공사 : 2020. 3. 9(월) ~ 3. 11(수) 산본시장 영업 중단
- 도막형 바닥재포장 : 2020. 3. 30(월) ~ 3. 31(화) 산본시장 정상 운영
(공사 구간별 점포들만 일시 중단 예정)

문 의 건설과 ☎ 031-390-0526



군포소식

군포시가 알려주는 유익한 정보

06 불법건축 행위 금지 안내

불법건축물이란?

-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허가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축, 증축, 대수선(가구수 증가) 및 용도변경한 건축물
- 축조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준치기간이 만료된 기설건축물
-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건축물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 조치

원상복구 시정지시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고발, 기타 안허가 등 재산권 제한

건강한 건축문화 조성 협조

- 건축행위 전 건축 인허가 부서와 상담
- 건축물 매수 시 불법 사항이 있는지 사전에 건축물대장 등 확인
- 불법 건축행위나 불법건축물 발견 시 군포시청 건축과 건축 지도팀에 신고

문의

건축과 ☎ 031-390-0403

07 2020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접수기간 2020. 2. 3(월) ~ 사업물량 소진 시까지

사업량 3,040대 (일반 3,000대, 저소득층 40대)

지원금액 일반(20만원/대), 저소득층(50만원/대)

지원대상 접수기간 내 선착순 접수순서에 따라 선정

- 일반(20만원 지원)
- 저소득층(50만원 지원)
- 신축 공동주택

신청방법 방문, 등기우편

접수처 군포시청 환경과 대기환경팀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청 별관 4층)

신청대상

- 군포시에 주택을 둔 주택소유주 또는 주택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자
- 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실제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

문의

환경과 ☎ 031-390-0243 @imsarah1220@korea.kr



08 2020년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공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와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와 관련하여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기간 2020. 2. 7(금). ~ 예산 소진 시

사업량 19대

지원금액 대당 500만원(정액 지원)

사용내용 노후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동일 용도로 LPG 신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소재지가 군포시이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 차량등록 된 어린이통학차량(경유 소형)을 폐차(수출·말소포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운행차 저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급 불가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받은 후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원 가능)

※ 노후 중형 경유차 또는 노후 LPG차의 경우, 시청에 별도 문의

- 어린이통학차량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 경유 소형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라 어린이집 등에 이용되는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15인승 이하의 소형 경유차

문의

환경과 ☎ 031-390-0542

09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접수기간 2020. 1. 20(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 군포시청 홈페이지 ☎ www.gunpo.go.kr ▶ 시민참여 ▶ 인터넷접수

지원통보

부착가능 여부와 예산 확인 후 별도 연락

절차

- 저감장치 신청 ▶ 대상자 확정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접수 및 상담
- ▶ 장치계약 및 부착 ▶ 보조금 지급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44-0907

군포시 환경과 ☎ 031-390-0542



군포소식

군포시가 알려주는 유익한 정보

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둘러싼 '사실과 거짓' 감염내과 전문의에게 듣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에 코로나19를 둘러싼 각종 속설이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까지 거짓일지 김연숙 충남대학교 감염내과 교수의 도움말을 받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

Q. 코로나19는 열과 기침이 없어도 눈으로 전파된다?

A. 아니다. 코로나19의 주된 전파경로는 비말과 접촉에 의한 전파로 추정된다. 감염자가 기침과 재채기를 하거나 말을 할 때 비말이 배출돼 타인의 구강, 비강, 안구 등에 들어가게 되면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하면 된다. 단순히 눈으로 전파된다는 건 맞지 않는다.

Q. 최근 SNS에서 화자된 우한 현지에서 길을 걸던 남성이 픽픽 쓰러지는 중국발 영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됐기 때문이다?

A. 아니다. 길을 걸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는 심근 경색이나 뇌졸중 등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호흡기 질환만 있는 경우 말쑥히 걸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는 어렵고, 쓰러질 정도로 중증 감염인 사람은 이미 걸기도 힘들 정도로 호흡곤란을 호소하게 된다.

Q. 악수만으로도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하는게 좋다?

A.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코로나19는 접촉으로 전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감염자가 기침을 할 때 튀어 나온 비말이 묻어 있는 손으로 다른 사람과 악수를 하고, 악수를 한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눈이나 코를 만지게 되면 전파가 가능하다. 따라서, 손씻기가 감염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정상 건강인끼리의 악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손씻기를 습관화 하면 코로나19를 포함한 다양한 감염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Q.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 당뇨나 암, 심혈관, 폐,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사망률이 높다?

A. 맞다. 감염질환이 면역 저하자에서는 중증 감염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사망률 또한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젊은 건강한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므로,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사망률이 높아지게 된다.

Q. 무증상(잠복기) 상태에서 전파가 가능하다?

A. 맞다. 가능성이 있다. 잠복기의 정의는 노출 후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의 기간이다. 일부 바이러스들을 보면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전부터 바이러스를 배출하기 시작해 무증상 기간에도 전파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의 경우, 독일이나 일본에서 보고된 사례를 보면 특별한 증상자와 접촉한 적이 없는 사람들에서 감염이 확진돼 현재로서는 무증상(Subclinical infection)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 기간 동안 감염력이 얼마나 될지, 실제 감염 가능한 기간은 증상 발현 며칠 전부터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Q. 마늘 7통의 껍질을 벗겨 잘게 부수고 다시 종이컵으로 물을 7컵 부어 푹 끓여 하루 3회 1주일동안 복용하면 어떤 악성 전염병도 완치된다?

A. 아니다. 이 역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도서관 등 군포시 산하 공공시설의 휴관(확산 진정 시까지)이 결정돼 이번 호 「교육·문화」 코너는 「군포소식」으로 대체 됐습니다. 다음 호에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 뵈 예정이니 양해 바랍니다.

Q.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처한 자리(예: 지하철, 버스, 커피숍 등)를 스치기만 해도 감염이 된다?

A. 아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간접 접촉(환자와의 직접 접촉이 아닌 주변 환경이나 환자가 사용했던 물건 등과의 접촉)에 의한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아직 이 부분까지 입증되진 않았다. 오염된 환경을 접촉했을 때외 감염은 확진자가 머물렀던 장소의 특성(공간 크기, 밀폐 혹은 환기 여부)과 그 장소에 머물렀던 시간, 확진자의 특성(마스크 착용 여부, 기침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바이러스 배출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밀폐된 좁은 장소 내에서 바이러스 배출량이 높은 상태의 확진자가 기침을 많이 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오염된 환경(문 손잡이)에 곧바로 접촉한 사람이 손씻기를 하지 않고, 눈, 코, 입을 만졌을 때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순히 스치는 것만으로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Q. 코로나19 예방법으로 권장하는 손 씻기와 손 세정제를 써도 소용없다?

A. 아니다. 물과 비누를 이용하거나 손소독제를 이용한 손씻기는 코로나19를 포함한 다양한 감염질환을 예방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Q. 중국산 김치와 식자재를 먹으면 감염될 위험이 높다?

A. 아니다. 이 부분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 2003년 유행했던 SARS(사스)의 경우에는 대변 대 구강 경로로 감염된 사례가 있어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중국산 김치와 식자재를 통한 감염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근거는 없다.

Q. 코로나19는 사람 뿐 아니라 반려견도 감염 될 수 있다?

A. 아니다. 아직 반려견(혹은 묘)에 감염된다는 근거는 없다. 그러나, 애완 동물을 만진 후에 손씻기를 하면 여러 감염질환으로부터 예방될 수 있기때문에 손씻기의 생활화가 매우 중요하다.



Q. 공기 전파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

A. 아니다. 일반적으로 공기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감염 질환은 결핵, 홍역, 수두, 파종성 대상포진 등이 있다. 코로나19는 현재로서는 비말과 접촉 전파가 주된 감염 경로로 추정되고 있다. 공기 전파는 감염원이 5μm 미만의 비말핵 상태로 공기 중에 몇 시간 정도 떠다닐 수 있어 이에 오염된 공기를 호흡하는 경우에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N95 마스크와 같은 것을 착용해야 한다. 비말 전파는 비말의 크기가 5μm 이상으로 공기 중에 분사돼 다른 사람의 입이나 코, 눈 등으로 들어가 감염이 이뤄지는 것을 말하며, 감염자로부터 2m 이상 떨어지고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감염이 공기 전파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는 없으나, 다른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처럼 에어로졸이 생성될 수 있는 환경(병원에서 기관지경이나 기관 삽관 혹은 흡입 시행 중에 생성됨)에서 공기 전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돼 병원 내 의료진은 N95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다.

Q. 양파가 바이러스에 대한 일종의 포집효과가 있는 만큼 비치를 하면 예방이 될 수 있다?

A. 아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다.

의정소식

군포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알려드려요

☞ 군포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개최 '입법 활동 활발'



군포시의회(의장 이견행)는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제244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 및 기타안건 조례안 심사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심사가 이뤄졌다.

2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5일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장경민 부의장이 발의한 군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복임 의원이 발의한 군포시 멸종위기 맹꽁이 등 아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홍경호 의원이 발의한 군포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 이길호 의원이 발의한 군포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신금자 의원이 발의한 군포시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귀근 의원이 발의한 군포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조례안 등 의원발의 7건을 포함한 총 25개의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가 진행됐다.

이어 26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대상기관 등을 정한 계획안을 심사했으며 27일 제2차 본회의로 제244회 임시회가 마무리됐다.

☞ 군포시의회 "전통시장 장보기로 지역경제 살린다"



군포시의회(의장 이견행)가 1월 2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를 통해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군포역전시장에서 열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 전통시장 구매물품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여 함께 온정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다.

이날 의원들은 시장 구석구석을 찾아 제철 과일 및 제수용품, 육류·생필품 등을 직접 고르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또한 상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렇게 구입한 물품은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전달돼 시설 이용자들이 따

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바지했다.

이견행 의장은 "장보기 행사와 캠페인을 통해 서민경제가 안정되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웃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분들이 곳곳에 많이 있다. 명절을 맞이해 주위의 이웃을 돌아보고 모두가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 군포시의회,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펼쳐



군포시의회(의장 이견행)가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통해 일하는 의회의 면모를 보였다. 지난 2월 11일 김귀근 의원은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장과 수리동장, 관련 직원들과 함께 중앙도서관과 덕유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계단길 및 그 주변 환경을 둘러보며 노약자 통행 환경 개선을 위해 직접 발로 뛰는 등 민원 해결에 앞장섰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달 경로당에 신년인사차 방문했을 때 제기됐던 민원에 대한 후속 절차로, 당시 민원을 제기했던 시민들 역시 현장을 찾아 고충을 토로했으며 이를 들은 현장 관계자들은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강구했다.

이에 김귀근 의원은 "비탈길은 노약자들에게 위험할 수 있으니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2월 13일에는 군포시의회 2층 문화강좌실에서 시민체육광장 내 인라인 스케이트장 바닥 정비와 관련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신금자 의원과 군포시청 문화체육과 직원, 지역 주민 등 15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인라인 스케이트장 이용자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그동안 접수했던 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검토 및 조치 계획 등을 공유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자유롭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등 열린 소통의 분위기 속에서 주민



들은 특히 바닥 마감재를 신경 써달라며 활주할 때 바닥이 미끄러워 다치는 일이 없도록 정비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집행부는 아이들과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향후 바닥 보수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공사 시 오늘 의견에 적극 검토·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신금자 의원은 "이번 간담회가 지역 주민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한편,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군포소식이 시민 여러분의 행복소식을 기다립니다

분야 시·수필(자유 주제)

분량 1,100자 이내(10포인트 기준 A4 반장 내외)

참여 이메일 gunpo-city@naver.com 제출
(주소 및 연락처(모바일) 기재 필수)

* 원고가 게재되면 소정의 참여 보상(3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등)
지급, 사전 연락 없음.

* 기고 제출 시 원고료 지급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최근 6개월 내 원고 게재자는 독자기고 참여가 제한됩니다.



반월호수의 낮과 밤

호수 위의 청둥오리는 고개를 가울가울 놀리며
유유히 헤엄쳐 가고 있습니다

나는 호수의 둘레길을 오리의 물결 리듬에 맞춰
하나 둘 하나 둘 신나게 걸었습니다

드론은 호수 위를 열심히 연습 비행하며
오리의 나들이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어두워지자 둥근 달은
호수의 물거울에 잘생긴 얼굴을 비추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밝은 미소로 윙크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새 나는 달에게로 달려가 눈웃음을 짓고 말았습니다



정옥순

통일을 꿈꾸며

온 국민이 그렇게 바라던 통일이
어긋나기 몇십년

세월은 흘러흘러
자꾸만 달라지는 세상

대동아전쟁, 8·15, 6·25, 4·19, 5·18을 거치는 동안
모질게 살아온 할아버지

타오르는 불사조의 기개는 어디로 가고

해와 달이 뜨고 지면서
뒷전으로 물러선 할아버지

조용한 기다림과 희망으로
얼룩진 세상을 바라본다.



우서규

사랑하는 동생에게

잘 지내고 있지?

군포에 와서 들어서 알콩달콩 잘 지내다가 네가 결혼한 후 떠난 빈자리가 썰렁하네~

어릴 때부터 떨어져 지낸 적 없을 만큼 오랜 시간 붙어 있었는데... 마음이 참 이상하네.

토닥토닥 싸우기도 했지만 한 살 차이라 친구처럼 잘 지낸 하 나뿐인 내 동생.

신혼집이 경성도라 너무 멀어져서 쉽게 갈 수 없는 거리지만, 항상 전화통화를 하다보니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 핸드폰이 없었을 어땠을까 싶어.

네가 가지고 간 옷가지들과 짐, 책들이 없어지니 너의 빈자리

가 더욱 크게 느껴지네.

싸울 때는 너무 싫고 떠나고 싶었는데, 막상 네가 떠나고 나니 싸웠던 그 시간들도 너무 그리운 추억들이 되었는데.....

결혼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 자주 만나지는 못하겠지만 지금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자주 전화하면서 지내자.

늘 건강하고 아프지 말고 사랑 많이 받는 아내, 시댁에서도 이쁨 받는 예쁜 며느리가 되길 바라.....

제부... 아직은 어색한 사이지만, 이제 조금씩 더 친해져봐요~

내 동생 많이 사랑해주시고, 제부만 믿고 있을게요.

멀리서나마 늘 응원하고 축복해, 행복한 가정 이루길 바라!!

사랑해 동생아!!



김혜현

군포 부곡동 휴먼시아 아파트는 나의 행복한 삶의 터전

아버지는 나를 응원해 주는 정말 따뜻한 분이다. 얼마 전에 쓴 글들 중 하나를 골라 아버지께 보여드렸는데 아버지가 응원해 주셔서 난 너무 기쁘고 힘이 났다.

"아버지 오늘 제가 쓴 글 이에요."

"그래 슬기야! 고맙구나. 이렇게 좋은 글을 써 주었으니 감사하고 기쁠 뿐이다."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나의 인생의 선배로 참 따뜻한 스승님이다.

어머니는 외유내강 형이시고 건전한 생각을 가진 분이시다. 두 분이 두 딸을 이렇게 모든 부모들이 그러하듯 갖은 고생을 이겨내시고 훌륭하게 키워내셨다. 언니는 중학교 선생님이요 나는 작가지망생 문인으로.

우리 가정은 군포부곡동 휴먼시아아파트에 살고 있다. 엔틱 스타일 가구들도 사서 배치하고 내방에는 불박이장이 있어 방이 깔끔하다. 거실도 세 사람이 살기에 아담하니 남향이라서 오후에는 따뜻한 빛을 받을 수 있다. 부모님께서 내가 아파서

병원에서 퇴원하고 고생하는 동안 일을 하셔서 적금을 오래 부으셨고 이곳에 결국 입주하게 되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모님과 지금 홍제동에 사시는 큰어머니가 예전에 놀러 오셨는데 우리 아파트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보다 더 좋다고 유머러스하게 이야기도 하셨던 기억이 난다. 정말 땅값이 다를 뿐이지 그렇다고 나는 주장하고 싶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고난도 찾아오고 그 고난이 결국 행복으로 가는 과정임을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된다. 난 군포부곡동 휴먼시아아파트에서 살면서 산새들이 나무에 놀러와 앉아 지저귀며 양기를 받은 땅과 나무 그리고 하늘의 기운이 싱싱한 아침을 열 때면 그리고 가끔씩 어머니와 근처 삼성 천에 오리들이 작은 벌레들을 먹으며 내려가 개천을 유유히 무리지어 노닐 때 난 행복을 느낀다.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이렇게 좋은 고장 군포에 위치한 휴먼시아아파트는 나의 행복의 자산이다. 감사한 마음이 든다.



황슬기



숨은그림찾기

그림 안의 일곱 군데 숨은그림과 이달의 수수께끼 정답을 찾아주세요.

- 숨은그림** 화살표, 머리빗, 눈사람, 물고기, 연필, 모자, 펜촉
수수께끼 경기도 내 154개 역사 중 7번째로 이용비율이 높은 곳은 ○○○이다.
 (06~07페이지 참조)



풍당풍당 수리샘수도녹지사업소 내

정답제출

숨은그림과 수수께끼의 정답을 모두 표기 후 사진을 촬영해 3월 20일까지 이메일(gunpo-city@naver.com)로 제출해주세요. 다섯 분을 추첨해(개별 공지)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드립니다.

- ※ 이메일 응모 시 이름, 주소, 전화번호 표시 필수
- ※ 대용량 사진 파일 첨부 금지 ※ 최근 6개월 내 당첨자는 추첨에서 제외

상품권 발송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동의

- 개인 정보의 수집 목적: 당첨 시 본인 확인 및 상품권 배송
- 수집하는 개인 정보 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개인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1년 보유 후 파기

지난 호 정답자

김*신 010-2**7-*59* 이*정 010-2**9-*08* 나*희 010-7**0-*45*
 강*준 010-2**1-*95* 김*면 010-5**2-*48*

지난 호 정답

수수께끼 김유길
숨은그림 삼각김밥, 음표, 오리, 오렌지, 조개, 막대아이스크림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

모든 종이 재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염된 종이



폐
휴지

음식물 등
오염물질이
묻은 종이



영수증 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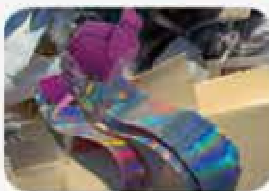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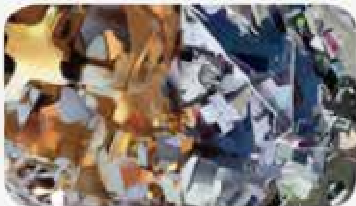


택배
전표

영수증

코팅지

금·은박지



비닐
코팅지

기 타

벽지
(합성수지
소재)



세절지
(파쇄지)

부직포



자세한 내용은 분리배출법을 참고해주세요.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0. 3. 1.(00:00) ~ 2021. 2. 28.(24:00)
- 보험료 : 군포시에서 일괄납부 완료
- 가입절차 : 군포시 시민 전체 자동가입



보험가입 혜택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군포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군포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군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	군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강도상해 사망	군포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 제외)	1,500만원
강도상해 후유장해	군포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군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군포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00만원 한도 (1급~14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준함)
가스사고사망	군포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가스사고후유장해	군포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물놀이사고사망	군포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물놀이란: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 물놀이사고로 상해사망 및 익사사망을 포함보상하지 않는 사고는 약관을 준용함	1,500만원
온열질환진단비	군포시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15만원 (최초 1회한)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경위서(경찰서, 소방서) 등
 2. 기타 필요서류 : 콜센터 문의

※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평일 09:00~18:00) ☎ 1522-3556 FAX, 0505-181-5624

※ 보험금 청구서 양식 : 군포시 홈페이지(www.gunpo.go.kr)에서 다운로드